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 재 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3년도 기도제목

- 1)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6~8)
- 2) 천국을 침노하자 (마태복음 11:12)
- 3) 마음-성전 (로마서 13:10)
- 4) 재창조의 권능 100% (요한복음 14:11~12)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이수진(당회장 직무대행)
(남) 안성현 조대희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정규원 김영석(3) 장성식
정현진 이풍근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도 노영진
(여) 이미경 최영자 이미영 이성숙
황금란

협동 목사/ 문신현

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

전 도 사/ 김영순 권영남 차경숙 최영신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윤영자
임금선 조은영 강순길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고경아

교육 전도사/ 성기용

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

지교회 교역자/ 문태규 정철수 이현영 박홍영
김요한 강승표 박형렬 박재영
최제수 서진범 김창숙 박종대
황병덕 오한준 김혜경 차전환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상휘

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명호, 세바스찬 임팩트 펄고
풀 무사파리 날완고(협력), 자고 네마 시카텐다(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쯔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정연, 온두라스 에스테인 할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미 국: 남상송, 마크 바잘레프
영 국: 제인 음폴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비탈리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핀: 조찬형, 성 숙,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상휘
몽 골: 발저릭 푸레브, 안흐바야르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지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월슨 존 길, 타리크 지아
중 동: 보나 시두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에스토니아: 그리고리 콜레소프

원로 장로/ 이정호
장 로/ 빈성건 이규동 이동립 최종태 추우동 이시현 박광호 유익선 최정수
박영준 정안권 김영기 박현재 이수형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홍만
송왕근 김진홍 송석길 장영규 이익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효용
윤성식 김기호 박홍열 박영갑 김보완 홍명일 김준호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태봉 채윤식 김석환 진교성 황병현 박성준 최병술 이덕행
최현수 허은범 정태찬 고광규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국 마수용 이용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열 손영락
윤부열 박종웅 송영현 이성익 정영태 정용필

명예 장로/ 김세원 윤석재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중 최신일
한병용 나종규 이기완 한홍렬 강재규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명옥 배철호 김영남 서성이 문경진 박진무 이주필 박경준

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종웅
나 사 렛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환 들 성가대: 서승현 膩시오케스트라: 김한구

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53장 1절	다 같 이
* 성서교독	44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다 같 이
찬 송	453장	다 같 이
기 도	최영자 목사
성경봉독	누가복음 16:22~26	사 회 자
찬 양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지옥(8)	당회장님
기 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174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사 회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영상	당회장님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장성식 목사

대표기도	류순주 전도사
성경봉독	욥기 16:7~9/ 사회자
찬양	주님을 찬양하라/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낸시 카푸르 집사(인도 델리만민교회)
설교	욥기 강해(40)-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정진영 목사

대표기도	정현진 목사
성경봉독	빌립보서 4:8~9/ 사회자
찬양	금빛성가대
설교	육체의 결여(1)/ 이미경 목사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사회/ 임학영 목사

대표기도	이미영 목사
성경봉독	누가복음 7:36~38/ 사회자
찬양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설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입 맞추니/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 은사집회 -

2-9회 14차 작정 다니엘 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남 원장
기간/ 3월 6일(월) ~ 3월 26일(주일)
주제/ 2023년 7가지 기도제목, 은사집회를 위해

새벽 예배

인도/ 정규원 목사
시간/ 매일 오전 5시
(토요일은 제외)
장소/ 3층 성전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조수열 목사	이성숙 목사
주일 저녁예배	이석규 목사	최성숙 전도사
수요 예배	정규원 목사	나혜숙 권사
금요 철야예배	서진범 목사	장성식 목사

강단헌화
갤러리



제 목 : 지옥 (7)

본 문 : 누가복음 16:22~26

지난 시간 아랫음부에 이어 오늘부터는 연령과 죄악의 경중에 따라 아랫음부에서 받는 형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숨을 거두면 두 지옥 사자에게 이끌려 아랫음부의 대기 장소로 들어갑니다. 육의 몸을 벗은 영혼은 큰 구덩이 같은 곳에 던져져 3일간 적응 기간을 보내지요. 이때 흥측한 새들이 날아와 크고 날카로운 부리로 쪼아 대면 눈알이 빠지기도 하고 살갓이 벗겨지기도 하면서 지옥이라는 암담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3일이 지나면 구덩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자 형벌 받는 장소로 가지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곧 백보좌 대심판을 받을 때까지 각자의 죄과에 따라 형벌을 받습니다.

아랫음부에서 받는 형벌의 종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벌레에게 뜯기고 피 흘리기도 합니다. 새나 흥측한 짐승에게 사지를 찢기기도 하지요. 별경계 달궈진 바위에 짓눌린 영혼, 뜨거운 모래 위에 세워진 영혼도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속 또는 끓는 물이나 악취 나는 더러운 물속에 들어가 고문받는 영혼도 있지요.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몸서리쳐지는 지옥 사자들이 흥기로 고문하기도 합니다. 지옥 사자들은 형벌의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고문 기법을 동원하지요.

천국은 선하신 하나님께 속한 영역으로 행복만 가득한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큰 행복을 줄까?' 하고 선한 지혜를 충동원하여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옥은 천국과 정반대로 고통과 괴로움만 가득합니다.

특히 아랫음부는 악한 영들이 온갖 악한 지혜를 짜내어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곳입니다. 물론 이곳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지만 직접 치리하시는 영역은 아니지요. 악한 영들이 권세 잡고 모든 형벌을 주관하도록 내어주신 영역입니다.

1. 갖가지 악랄한 기법으로 영혼들을 고문하는 악한 영들

아랫음부를 총괄하는 우두머리는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한 영의 머리가 된 루시퍼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아랫음부에 간다는 것은 곧 자비와 긍휼함이 전혀 없는 루시퍼의 손아귀에 전폭적으로 맡겨진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라면 루시퍼를 비롯한 악한 영들은 악 자체입니다. 이들

은 ‘어찌하면 더 심한 고통을 줄까?’ 하고 갖가지 악랄한 기법으로 영혼들을 고문하며 아랫음부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문 기법이나 도구만 해도 그 종류가 다양하고, 보거나 듣기만 해도 매우 끔찍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지배국이 피지배국의 저항 세력이나 전쟁포로를 잔인하게 고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가 모진 고문을 받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지요. 특정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문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순교자 중에도 극심한 고문으로 고통받다가 숨을 거둔 이들이 많습니다.

영화 같은 영상물을 통해 고문 장면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경이 예민한 손톱 밑에 대바늘이나 날카로운 꼬챙이를 깊숙이 꽂습니다. 손톱과 발톱을 하나씩 뽑기도 하고 이를 뽑기도 하지요. 고춧가루 탄 물을 눈과 코에 들이붓고 자극적인 음식물을 다량으로 강제 주입하여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에 강제로 얼굴을 들이밀어 숨이 막혀 죽을 지경까지 가게 했다가 다시 꺼내기를 반복하지요.

새빨강게 달곤 인두로 몸 곳곳을 지지기도 하고 담뱃불로 지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산 사람에게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산 채로 태워 죽이는 경우도 있지요. 사람을 거꾸로 매단 채 몽둥이찜질을 해서 살과 뼈가 으스러지고 나중에는 창자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전기 고문으로 혈관이 터지고, 내장 기관이 타들어 가며, 말이나 차에 사람을 매달아 빨리 달리므로 살이 닳아 뼈가 하얗게 드러나지요. 여성들의 경우, 성(性)적으로 심한 수치와 모멸감을 주어서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학대하는 일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문을 받고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합니다.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사주하는 존재가 바로 어둠의 영들입니다. 곧 원수 마귀 사단이지요. 그러니 이 땅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만 보아도 아랫음부의 형벌을 관장하는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흉악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고안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악랄한 기법으로 영혼들을 고문할 수 있습니다. 더 섬뜩한 것은 이들이 영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악한 영들이 아랫음부를 관장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해도 일정 수위 내에서만 고문할 수 있습니다. 지옥도 영계의 법칙에 따라 운행되는 곳이므로 영혼들의 죄과에 상응하는 형벌만 집행할 수 있지요. 따라서 악한 영들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고문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학성이 극에 달합니다.

2. 아랫음부의 형벌을 집행하는 지옥 사자들

아랫음부의 형벌은 악한 영 중에서도 지옥 사자들이 집행합니다. 이 지옥 사자들은 루시퍼의 하수인 같은 존재들이지요. 아랫음부를 총괄하는 루시퍼의 마음과 의지에 따라 아랫음부를 관장합니다.

이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이었습니다. 루시퍼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하급 천사들이지요. 타락한 천사 대부분은 무저갱에 갇혀 있지만 일부는 아랫음부를 관리하며 고문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옥 사자들은 죽은 영혼을 아랫음부로 끌어가는데 사명을 맡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랫음부에 있습니다. 이들은 타락하기 전에 천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매우 아름다운 형상을 입고 있었지만, 타락한 후에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음산하게 변형되었습니다.

지옥 사자의 형체는 전반적으로 시커멓고 그 얼굴은 사람과 비슷한 모양도 있고 갖가지 가증한 짐승의 탈을 쓴 모양도 있습니다. 저주받아 흉측하게 변형된 형상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괴상한 색조와 무늬로 머리카락, 얼굴을 꾸미고 가증한 것들로 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무시무시한 철갑옷을 입고 군화를 신은 지옥 사자도 있습니다. 그 몸에는 닿기만 해도 베이고 찢길 듯한 고문 기구들이 달렸지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나 창, 채찍을 손에 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둠의 권세를 가진 존재이므로 그 모습이 위압적입니다. 움직일 때도 강한 악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짓눌릴 정도이지요. 이 흉물스럽고 무서운 지옥 사자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고문입니다.

지옥 사자들은 아랫음부에 떨어진 영혼들을 고문하는데 아직 말도 못 하는 어린 영혼이라도 예외 없이 혹독하게 다룹니다. 루시퍼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기 때문에 루시퍼의 극악함이 이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 사자들은 아랫음부의 형벌 중에서도 주로 중한 형벌을 담당합니다.

3. 어린아이들이 받는 형벌

아랫음부의 형벌은 고통의 경중에 따라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생전에 주님을 몰라 믿지 못했는데 양심 심판에도 통과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같이 양심에 확인 맞아 하나님을 대적한 영혼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지요. 몰라서 믿지 않은 것보다 알고도 믿지 않은 죄, 은혜를 받고도 배신한 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네 단계의 형벌에 관해 설명하기에 앞서 어린아이들이 받는 형벌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사춘기 이전에 죽은 아이들은 따로 분류되어 별도의 형벌을 받습니다. 네 단계의 형벌은 사춘기 이후의 사람들, 곧 성인들만 해당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33세로 환원됩니다. 어린아이도 성인이 되고 노년에 죽은 영혼들도 33세의 한창때 모습으로 변하지요. 그런데 아랫음부의 형벌은 왜 연령에 따라 구분될까요?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로 죽었으면 어린아이로, 노년에 죽었으면 노인의 모습으로 세세토록 살아가지요. 이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으므로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는 부활체와 유사한 개념의 '영적인 육'을 입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으면 그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지요.

비록 어린아이라 해도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부모에게서 나고 자랐다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양심 심판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의 본성이 악하여 양심 심판마저 통과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어른들보다 범죄한 일이 적으므로 형벌은 가벼운 편이지요. 어린아이들은 본능에 의해 공포와 배고픔, 통증을 느끼는 것이 곧 형벌입니다. 지옥 사자의 고문보다 가벼운 형벌이라고는 하나 어린아이로서는 참기가 심히 어려운 고통이지요.

그중에서도 갓난아이들, 곧 말도 못하고 걸음마조차 못하는 연령대의 아이들은 분류되어 커다란 장소에 갇힙니다. 이들의 영혼은 이 땅에서 죽은 당시와 같이 어린아이의 형상과 의식이 있습니다. 아직 무엇을 지각할 수도 없고 스스로 걸어서 돌아다닐 수도 없지요. 엄마 아빠의 존재도 알지 못하며 지금 지옥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본성을 따라 배고픔에 울어댁니다.

이렇게 울어대면 지옥 사자들이 다가와 송곳과 같은 뾰족한 도구로 아이들의 배, 팔다리, 눈, 손톱, 발톱 등을 찔러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곳이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지요. 지옥 사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재미있어합니다. 심심하면 조그만 아기 하나를 집어 들고 그 몸에 바람을 불어 넣습니다. 아기의 몸이 풍선처럼 부풀면 공 굴리듯 굴리면서 가지고 놀지요. 태아로 죽은 영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아랫음부에 떨어지면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누더기를 입는데 여기저기 찢기고 더러운 것이 묻어서 낡은 갈레 조각에 가깝습니다. 천 조각으로 겨우 몸의 일부분 가린 경우도 있고 아예 별거벗겨진 이들도 있지요. 마음이 악한만큼, 죄가 중한만큼 더 수치스러운 복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랫음부에서는 자비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지옥 사자들에게 짐승, 혹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습니다. 또 지옥에 간 사람들 자체가 악하니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받으려고 옆 사람을 짓밟고 늘 욕하며 원망하지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 이런 끔찍한 지옥이 아니라 아름답고 선한 천국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 : 욥기강해(39) - 허망한 말
 본 문 : 욥기 16:1-6

오늘은 허망한 말의 무익함과,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허망한 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욥 16:1-3)

1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말했고, 16장부터는 욥이 그 말을 받아서 다시 변론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권면했던 말들은 욥도 이미 선진들로부터 들어와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은 왜 친구들을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안위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안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욥을 헐기 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며 번뇌케 만들 뿐이었지요. 친구들은 계속 말로 욥을 다그쳤기에 욥이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니 머리가 더욱 복잡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들의 말로 인해 오히려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믿음의 형제들 간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대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말이 상대로 하여금 오해와 번뇌를 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잠잠히 기다리는 편이 낫지요.

“허망하다”라는 말은 “거짓되고 망령되다, 허무하고 어이없다” 또는 “허황되고 미덥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왜 친구들의 권면을 허망한 말이라고 단정하는 것일까요? 이는 친구들의 행함이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진리 안에 살면서 본이 되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쉽게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고,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당신을 보니 나도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답을 하게 되지요.

반대로 언어와 행실이 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면 “당신이나 좀 잘 믿으세요.”라고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헛된 말이 바로 허망한 말인 것입니다.

욥은 친구의 말이 허망하다고 하면서, “네가 무엇 때문에 격동되어 이런 말을

하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욥의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격동된 것일까요? 먼저는 욥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말들을 했고, 이에 친구들이 열심히 권면했는데, 욥은 이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니 친구들은 이러한 욥이 아니꼽고 싫기 때문에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흥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욥은 본인이 이처럼 원인 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왜 이처럼 감정이 나서 허망한 말들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게다가 욥 자신은 여전히 옳으며 온전하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친구들이 격동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지요.

이렇게 대화 중에 상대가 격동한다면,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였고,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좇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내 마음에 영으로 일구어졌다면 무슨 험담을 듣거나 오해를 받는다 해도 진리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여 내게 잘못이 있어서 비방의 말을 듣게 되었다면 화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애매히 그런 말을 들었다면 내가 진리를 어기지 않았으니 더더욱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대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원수 마귀 사단이 물러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므로 축복이 임하게 되지요.

반대로 그러한 말로 인해 내 마음이 요동하고 감정이 뒤틀린다거나 실족한다면, 이는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2. 서로 입장을 바꿔 보자고 제안하는 욥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욥 16:4-5)

여기서 말을 짓는다는 것은 정작 행함은 없으면서 자기들의 생각 속에 소신껏 말을 지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친구들이 욥의 편에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속에서 마음대로 욥을 질책했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이 자기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하므로, 서로 입장을 바꿔 보자고 제안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 처지에 있고 너희의 악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가 격동될 수 있는 말로 너희들에게 퍼부었을 것이며 너희들에게 머리를 흔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욥은 오히려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격려의 말로 힘과 위로를 주며, 근심을 털어 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전에 욥에게 이러한 선의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욥 4:3-4). 욥이 연단받기 전에는 비록 영적인 행함은 아니었다 해도 육적으로는 선과 사랑을 베푸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아, 너희들은 행치도 않으면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것저것 이 잘못되었다 지적하고 있지만, 나는 행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시험을 받기 전이라면 너희를 강하게 할 수 있고 너희의 근심을 풀어 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옴의 편에서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는 친구들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얼마나 격동이 심했는지 온몸을 떨고 머리를 흔들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이 볼 때 현재의 옴은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눈에는 옴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영망진창이 되었는데, 회개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변론하며 친구들을 업신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옴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옴은 자기가 옛날 같았으면 친구들을 강하게 할 수 있으며 근심을 풀어 줄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자기 근심을 풀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의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대화법이 얼마나 무익한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옴과 같이 현재는 초라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도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권면이나 훈계를 한다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술 담배를 하며 나쁜 언행으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이 “나는 모태 신앙이고, 예전에는 성가대도 하고 주교사도 하면서 열심히 충성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입니까.

이와 반대로,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부유했었는데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고 세상에 빠지다 보니 결국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내 전철을 밟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간증한다면, 이는 회개 하는 자세이지요.

이렇게 과거에 자신이 실패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권면하면 상대방에도 은혜가 되고, 교훈과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3.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옴 16:6)

흔히 남의 일은 쉬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일로 고민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척척 해결됩니다!”라고 큰소리치는 것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정작 본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없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이루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는 없지요.

욥도 예전에는 남을 강하게 해주고 근심을 풀어 주었으나, 지금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우치면서 자기 발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욥이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을 때는 그의 말이 사람들에게 먹혀들어가는 듯했지만, 지금은 친구들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욥 자체가 영이 아닌 욥의 사람이므로,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 입으로 악한 말을 쏟아냈고, 이로 인해 친구들은 욥을 아주 천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란 변하고 썩어질 것이며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연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욥은 무익하니라”(요 6:63)는 말씀처럼, 상대에게 변화와 생명을 줄 수 있으려면 먼저 내 마음이 진리로 채워져서 말에 영적인 권세가 따라야 합니다.

욕적인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잠잠히 견디지 못합니다. 감정이 꿈틀대고 참도 오지 않으니, 결국은 상대를 찾아가 폭발해야 시원함을 느끼지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대로, 자기가 없으니 감정을 쌓아 둘 일도 없고, 오히려 상대에게 저줄 때 시원함을 느낍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욥적인 사람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 들으면 잠잠하지 못하고 얼른 주변에 전해야 마음이 시원합니다. 욥의 사람은 원수 마귀 사단의 음성을 들어 나가기에 악을 발함으로 사단을 시원하게 하니 내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영적인 사람이 혹여 남의 허물을 전한 일이 있었다면 마음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탄식 소리에 심히 곤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변에 하소연을 하면 속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곤고해지지요.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한 것을 회개해야 편안해집니다.

욕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갈수록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욥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에 잠잠하면 고통스러웠으며 악을 입 밖으로 쏟아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뿌린 말들로 인해 갈수록 곤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심어 나가면 스스로 울무에 매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잠언 13:2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나” 말씀했고, 잠언 18:21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명심하여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진리 안에서 자꾸 긍정해 나가면,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입술을 제어하여 오직 긍정의 고백, 믿음의 고백, 선의 고백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2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요령

읽을 말씀 / 예레미야 33:3

외울 말씀 / 예레미야 33:3

참고 말씀 / 히브리서 11:6

교육 내용 /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요령을 잘 숙지하여 중심 바쳐 불같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한다.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 마음을 집중하는 기도는 자세에서부터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하는 자세만 봐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엘리야는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힘쓰고 애써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중심 바쳐 기도해야 합니다

중심으로 하는 기도는 마음과 뜻, 힘과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 또한 바른 모습으로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꼭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중심의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집중하여 충만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줄거나 증언부연할 수가 없지요. 또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주관 아래 하나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지요. 뿐만 아니라 억지가 아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할 때 중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중심의 기도는 진심이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랑 자체이시며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믿음으로 구한다면 어찌 응답하시지 않겠는지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중심 기도를 드리며,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합니다.

2.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결코 조용히 기도하지 않으셨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잡념이나 피곤, 졸음이 틈타지 않고 중심 바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6장 6절을 인용하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지요.

성경 어디에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산이나 빈 들에서 기도하셨지요(눅 6:12 ; 막 1:35).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였고(행 10:9), 사도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 기도하였습니다(행 16:13).

따라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씀의 참뜻은 중심 기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외부와 차단되기 때문에 조용하고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지요. 이는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잡념, 세상의 근심 걱정을 버리고 마음 중심을 모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고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면 중심 바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밤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피곤이 밀려와 졸음으로 빠지기 쉽고, 세상 근심 걱정, 잡념과 싸우다가 지쳐 잠들기도 하지요.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 사단의 진을 뚫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려면 간절한 중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하고 시험 환난이 물러가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십니다. 차츰 주일 성수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 믿음이 자라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각 사람의 믿음대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응답으로 함께하시며 협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지요.

우리가 힘써 기도를 쌓아가면 하늘에서 오는 능력을 받아 죄악을 더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지요. 이렇게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한 믿음을 갖는 데에는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영적 믿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갖고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실천하며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믿어지는 산 믿음, 영적 믿음을 주시지요.

이처럼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믿음이 합치될 때 즉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이 불일 듯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믿음이며,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이 임하면 이미 응답받

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한 것처럼(막 11:24),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여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 복된 사람(마 21:22)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 목적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목적이 분명하면 일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며 더 빨리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목적이 불분명하면 일의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 잊어버리고 주저앉고 말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요 일 3:21~22).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얻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더욱 간절함과 인내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 중심을 보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5. 사랑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것이 피곤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수 있지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자신보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섬기는 목자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도도 어떠한 마음을 품고 하느냐에 따라 다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교회와 목자와 영혼들을 위해 올리는 것이 진실한 사랑의 기도입니다. 즉 영적인 사랑이 임하여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인 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몸 된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짓는 것보다 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간구합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땅과 재정, 일꾼과 기술력 등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조목조목 간절히 구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주님을 닮은 선과 사랑을 마음에 이뤘 항상 아름다운 기도의 향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요령에 대해 써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넷째,

다섯째, 사랑의 기도를 해야 한다.

2.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한다는 말씀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영적인 믿음’이란?

무에서 유의 창조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배운 지식이나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믿고 한 번 믿은 것은 현실과 조건에 상관없이 변개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또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거를 보이는 믿음이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2-818-7241)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00-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온사동, 옥길동)
10교구장	김영석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1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황미경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노영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문의전화/ 02-818-7102

알려드리는 말씀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권능」이 아프리카 스와힐리어와 슬로바키아어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의 저서 <깨어라 이스라엘>과 <지혜>가 오디오북으로 발간되어 교보문고 종교부문 일간 베스트셀러 1위와 2위에 올랐습니다.
- 만민뉴스 한국어(989호), 영어(739호), 중국어(613호), 말레이시아어(20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3월 은사집회」가 금주 금요 철야예배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준비찬양은 오후 10시 40분부터 시작하며 실시간 간증접수를 받습니다. (☎ 02-818-7300)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제3회 정기 원로회가 오늘 저녁예배 후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 부활주일(4월 9일)을 맞이하여 학습 문답 및 학습식을 실시합니다.
학습 문답 대상자는 문답내용을 숙지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문답서는 신학교 1층 우림복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학습 문답: 3월 19일(주일), 3월 26일(주일) 오후 2시 3층 성전
※ 학습식: 4월 2일(주일) 오후 2시 3층 성전
-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를 여선교회 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3월 19일(주일)~26일(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국내 및 해외 지교회 성도(개인, 단체 가능)
※ 접수일시: 4월 6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 접수장소: 신학교 1층 회의실
※ 시상: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인기상, 참가상
※ 문의: 여선교회 총연합회 (이옥주 권사 ☎ 010-5395-1762)

- 당회장님 저서를(주보 맨 뒷장 참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교회 소식**

구미만민교회(담임 최제수 목사) 창립 26주년 기념예배/ 3월 19일(주일) 오후 3시

※ 강사: 이미영 목사

속초만민교회(담임 박종대 목사) 창립 19주년 기념예배/ 3월 26일(주일) 오후 3시

※ 강사: 정철수 목사

- **기관 소식**

청년선교회연합회

성령충만기도회/ 3월 19일(주일) 대예배 후 오후 1시 30분 사택 예배실

※ 인도: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해외 지교회(꽃꽂이 봉사: 예배국 꽃꽂이부, 시설관리국)

— << 교구별 현장예배 장소 >> —

일 정		3층 성전	사택 예배실
3월 19일	대예배	중국대교구	7~10 교구
	저녁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1대대교구
3월 26일	대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중국대교구
	저녁예배	1대대교구	7~10 교구
4월 2일	대예배	1대대교구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저녁예배	7~10 교구	중국대교구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노영진 목사 010-3330-3172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황미경 전도사 010-9636-797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4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3/19 일

- 00:00 - '요한일서 강해 4' 이재록 목사
- 05:00 - '욥기 강해 1' 이수진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86' 이재록 목사
- 18:30 - '욥기 강해를 들으면서' 문태규 목사

3/20 월

- 01:00 - '금 그릇 2' 이수진 목사
- 07:05 - '창세기 강해 87' 이재록 목사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75' 이재록 목사
- 13:00 - '감사하는 삶' 이수진 목사
- 15:30 - '믿음을 척량하시니 16' 이재록 목사
- 19:00 - '우리 삶의 등불 98' 이재록 목사

3/21 화

- 01:00 -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2' 이수진 목사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76' 이재록 목사
- 10:20 - '십자가의 도 24' 이재록 목사
- 12:05 - '천국 35' 이재록 목사
- 14:00 - '요한일서 강해 5' 이재록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88' 이재록 목사
- 18:00 - '욥기 강해 2' 이수진 목사
- 19:00 - 구역 공과 39

3/22 수

- 00:00 - '요한일서 강해 7' 이재록 목사
- 01:00 - '지옥 7'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5:00 - '요한계시록 강해 68'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10:20 - '일곱교회 1' 이재록 목사
- 13:00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3' 이재록 목사
- 15:30 - '믿음을 척량하시니 18' 이재록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89' 이재록 목사
- 18:00 - '우리 삶의 등불 82' 이재록 목사

3/23 목

- 01:00 - '욥기 강해 39' 이수진 목사
- 07:05 - '창세기 강해 90' 이재록 목사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78' 이재록 목사
- 10:20 - '일곱교회 2' 이재록 목사
- 12:05 - '천국 37' 이재록 목사
- 13:00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4' 이재록 목사
- 15:30 - '믿음을 척량하시니 19' 이재록 목사
- 19:20 - '욥기 강해 21' 이수진 목사

3/24 금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79, 80' 이재록 목사
- 13:00 - '의와 틀을 깨뜨리자 1' 이재록 목사
- 14:00 - '요한일서 강해 8' 이재록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91' 이재록 목사
- 19:00 - 천지창조의 섭리 2
- 20:40 - 뉴욕 연합대성회 3

3/25 토

- 07:05 - '창세기 강해 92' 이재록 목사
- 10:00 -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이재록 목사
- 12:05 - '천국 39' 이재록 목사
- 19:40 - '우리 삶의 등불 81' 이재록 목사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02-824-7107, 1577-2073 / webmaster@gcntv.org

※ KT GENIE TV 882번 및 유튜브 GCN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분, 41번(영어), 42번(불어), 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분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인터넷 및 인터넷TV를 통해서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일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예배_ 오후 11시
다니엘 철야 기도회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tv.org

- Mar. 19(Sun.)

(Joshua 1:6)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you shall give this people possession of the land which I swore to their fathers to give them.

- Mar. 20(Mon.)

(Joshua 1:7) Only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e law which Moses My servant commanded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so that you may have success wherever you go.

- Mar. 21(Tue.)

(Joshua 1:8)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from your mouth, but you shall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in it; for then you will make your way prosperous, and then you will have success.

- Mar. 22(Wed.)

(Ephesians 6:12)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powers, against the world forces of this darkness,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

- Mar. 23(Thu.)

(Ephesians 6:18) With all prayer and petition pray at all times in the Spirit, and with this in view, be on the alert with all perseverance and petition for all the saints

- Mar. 24(Fri.)

(Leviticus 19:2) Speak to all the congregation of the sons of Israel and say to them, "You shall be holy, for I the LORD your God am holy."

- Mar. 25(Sat.)

(Matthew 5:48)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3월 19일(주일)

(수 1:6)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3월 20일(월)

(수 1:7)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3월 21일(화)

(수 1:8)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3월 22일(수)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3월 23일(목)

(엡 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3월 24일(금)

(레 19: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월 25일(토)

(마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 이재록 목사 간증 수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육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요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아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연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입문편 1

내가 사행하리니/ 입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람이 나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나에게 보내라니/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제성경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라/ ... 2.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 예배편

사랑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 기도편

치료하는 영여와/ ... 5.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 심계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 열재앙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지혜의 샘/ 잠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네딕도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지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많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갈옷을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감추었던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저자의 눈물이 담긴 책!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



의 침착한 모습을
현장 생중계하듯 보여주는 책

지옥의 침상을 알 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2023. 3. 1. (수) ~ 3. 31. (금)

우림북과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URIM BOOKS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 페이스북: facebook.com/UrImBooksStore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성
갈릴리여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회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중(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오

하나님의 법도/ 심계편

성령의 열매를 맺어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신서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젖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상!

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마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각 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3층 성전
화요찬양예배/ 학생,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7:40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3층 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대예배/ 오전 11:30 아동 온라인 공과[GCN]/ 오후 1:00	

※ 예배시간 및 관련 문의 : 만민중앙교회 기획실 ☎ 02-818-7236